통권 115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1. 5. 11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3차 정기총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3차 정기총회가 4월 21일 오후 3시30분 흥사단 중강당에서 각계 어르신 및 인사와 회원들 170여분이 어우러져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두는 지난 해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실현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2차 장기구금양심수 송환운동을 비롯,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와 "인권 및 민주주의 발전, 6.15공동선언 지지와 실천"을 위해 힘껏 나서자고 결의하였습니다.

목 차 우리의 주장(권오헌회장님) - 2 / 출소장기수 김교연선생님을 찾아서(곽인석 편집위원) - 4 / 정치수배자 유영업의 누나 유정희님을 찾아서(이창희 수습간사) - 9 / 서정민갑 회원을 찾아서(이승미 편집위원) - 11 / 산행기(정형근 회원) - 14 / 감옥에 보내는 편지(안은현 회원) - 15 / 감옥에서 온 편지(민혁당 관련구속자 임태열님) - 16 / 감옥에 보내는 시(유병문 편집위원) - 17 / 특집 "이종환선생님 별세 소식" - 18 /추모글 (이정규 운영위원) - 19 / 총회소식 - 21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4 / 회원 소식 및 광고 - 27 /회비납부현황 - 28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02-763-2606, 765-5282 **Fax.** 745-5604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에 입을 모은 노동절 함성

구조조정, 정리해고, 노동자 탄압의 악순환을 깨자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노동자들의 명절이었지만 축전행사는 없었다. 다만 분노와 규탄의 한 목소리가 있었을 뿐이었다. 세계노동절 111돌을 맞아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소속단체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등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세계 노동절 111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구조조정 중단,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공의료 및 공교육확대 등을 촉구하고, 민생파탄과 개혁실종에 대한 정책대안을 내놓지 않는 다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열사 장례식을 뺀다면 6월 항쟁 뒤 처음으로 종로, 을지로, 서울 시청앞 광장을 메운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민족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초국적 자본의 무한경쟁과 구조조정 강요에 분노했다. 한국노총도 서울역 광장에서 5000여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절 기념집회를 갖고 노동탄압 중단, 국민주택은행 합병 철회,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노동절이 있어 노동자의 외침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노동자의 외침이 있었기에 노동절이 있게 되었다. 노동자의 분노는 자본제적 생산관계에서, 공장제공업과 임금노동자의 대량창출과정에서 억압과 착취과정에서 일어났다. 노동력의 상품화, 노동자의 궁핍화에 분노하게 되었다. 1886. 5.1일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35만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것도 자본의 이윤 극대화 속에 자행된 기아임금과 노동시간 연장에 분노한데서였다. 잔혹한 폭압과 희생이 뒤따랐지만 18만여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관철시키는 승리를 거두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돌을 맞아 '빠리'에 모였던 세계의 사회주의 정당과 단체, 노동조합대표들이 조직한 제2 인터네셔널 창립총회에서는 5월 1일을 'May Day'로 정하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며 '데먼스트레이션'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것을 결의했었다.

노동자의 투쟁구호가 8시간 노동제 관철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정리해고 반대로 바뀌었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 유용가치를 창조하는 생산의 주역이면서도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착취를 받아와야 하는 임금노동자로서의 위상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바로 의, 식, 주를 비롯한 사람이 살아갈 모든 사용가치를 창조해 내지만 그러한 가치창조의 주인공으로서보다는 투자된 자본의 초과이윤 수단으로만 노동자를 대하고 있는 노·자의 모순관계는 백년전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일할 권리를 주장한다. 인권과 함께 노동권은 천부의 권리로서 사람은 노동을 통하여 자기 실현을 한다. 그러한 인간 노동이 있기에 역사도 사회도 문명도 있게되고 발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또한 일할 만큼의 정당한 몫을 요구한다. 노동의 즐거움과 행복감은 그 산물의 자기귀속으로 노동력의 유지보전과 가족의 생계·교육·의료 및 인간이기에 누려야할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얻는데 있는 것이지 남에게 제공되어 상대적으로 빈곤과 억압과 모멸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대우자동차가 노조원 1750명을 한꺼번에 정리해고 시키면서 밝힌 이유는 간단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헐값에 사들이려하는 외자에게 좋게 보이려 하는데 있다. 외자는 이 땅의 잘나가는 기업·은행과 수익성 있는 토지 등 노른자위를 좋은 조건으로 사들이는데 눈이 빨개있다. 이 땅의 유력한 기업 상당수가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 최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IMF 이후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추이"에 따르면 1997년 구제금융 신청당시 13조 9966억원 어치로 시가총액의 14.74% 이었으나 2001.4.27일 현재는 68조 9035억원어치로 31.11%를 점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우량산업과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주택은행(62.40%), 국민은행(61.36%), 삼성전자(58.23%), 포항제철(57.86%) 등 간판급 금융기관과 기간산업 등 17개 종목에서 지분률 50%를 넘어서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이 땅의 노동자들은 소속기업주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의 규정을 받아야 한다. 초국적 자본은 범세계적 경제구조와 그 조정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려 한다. 그들의 자본침투는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이다. 가난한 나라 뿐아니라 부자나라 기업에까지 경쟁력 제고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실업과 저임금 그리고 절대다수 인구를 주변화 시킨다. 사회적 지출이 축소되고 복지국가 형태는 폐기되고 도시빈민을 창출시킨다. 미국에서조차 "기아계층"이 수천 만명이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소수 득권층은 인구의 다수를 희생시켜 막대한 양의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는 인간의 빈곤과 자연환경의 파괴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세계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은 빈곤의 세계화로 치닫게 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밝힌 1993년 세계소득분포에 따르면 85.2% 인구의 저소득국가는 21.5%의 소득비율을 갖고 있으며, 14.8%의 고소득 국가는 78.5%를 점하고 있다. 오늘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최근 신문에 보도된 세계은행이 발행한 '세계개발지수 2001 보고'에 따르면 세계 최갑부인 미 월마트사 톰슨·월튼 회장의 재산은 우리 돈으로 84조원이었고, 세계 60억 인구가운데 12억명이 하루 1달러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양극화를 조장하는데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가 있다. '이들 기구는 상호 긴밀히 협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을 '감독'하고 '삼두권력' 체제로 역할하고 있다'고 미셸 초스토프스키 교수는 말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의 강력한 정책처방은 더 이상 임시적 성격의 국가별 차관 협약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무역자유화와 투자규정과 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상당부분이 이제 WTO 정관상의 조항으로 설정됨으로서 항구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오늘 인간사회가 가져야 할 사회정의나 도덕은 있지 않다. 새로운 냉전체제를 조성하여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그 하수인들이 있는 한 전세계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부를 축적하는 초국적 자본을 용인하는 한 오늘 우리는 고대 노예제나 중세 농노제를 헐뜯은 어떠한 도덕적 권위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반역사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이름으로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퇴출되고 인수 합병되었다. 앞으로도 공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해외매각 등 압박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은 반드시 정리해고가 뒤따른다. 그 과정에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당했던 폭력진압과 강제연행 구속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외친 노동자들의 주장은 바로 이 같은 일자리와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는데 대한 분노의 폭발이면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창출해 내고 있는 부의 상당부분이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있는 빈곤의 세계화에 저항하고 있는 함성이었다.

노동자들의 명절이었음에도 54명의 노동자가 감옥에 갇혀있었다. 구속양심수 가운데 44.5%를 차지하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노동자 탄압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뒤 1592명의 구속 양심수 가운데 노동자는 509명으로 구속 학생수 817명에 버금가고 있기도 했다. 5.1일은 마침 석가탄신일이었고 정부는 2085명의 구속자를 석방했지만 구속노동자나 양심수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지난 해 성탄절에도, 정권 출범 세 돌에도, 3.1절에도 그대로 넘기더니 노동절이자, 석탄절에 또 다시 제외시켰다. 이러고도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존중을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땅의 노동자들은 내일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다. 노동절날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는 분단 뒤 남북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하여 노동자의 본분과 민족적 관제를 다할 것을 다짐했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사회경제적·군사적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모든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자주권을 지키는데서 남북 노동자의 단결 또한 그 무엇에 앞서는 값진 선택일 것이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곽인석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부인 이혜옥님과 함께

하늘아래 굴곡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리오 마는, 이 땅의 역사만큼 뒤집혀진 굴절의 땅도 쉬 찾기 어려울 것이다.

가뜩이나 희뿌연 서울하늘이 황사로 뒤덮혔던 5월 3일 늦은 2시, 서울복판 탑골공원앞에는 보라색 수건을 머리에 쓰신 민가협 어머님들과 수건을 목에 매신 장기수선생님들이 이 땅의 해방과 평등 인권을 목놓아 부르짖고 계셨다.

후원회 산행이나 민가협목요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김교영선생님은 오늘도 거기 계셨다. "조선사람은 한이 많아 홍타령으로 풀지않으면 모두 미쳐버릴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어느 사람이 얘기 했던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할 수 없는 조선사람의 삶이 살아있었으니 ···

선생님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고르지못한 향기는 돌짝밭의 가시덤불속에 피어나 온 몸이 다 찢겨나간 조선들꽃의 응고된 철분이었다.

집회후 권오헌 회장님과 함께 정릉 선생님댁으로 향하였다. 연세를 알 수 없게 하는 잰걸음으로 앞장서신 선생님을 뒤따르면서 험난했던 산생활의 여진을 느낄 수 있었다. 두어 번 뵌 적이 있던 사모님께서는 언제나 정숙하시고 따뜻한 모습으로 과분히 맞아주신다. 요즘 어린 손주들을 맡아 키우느라 힘이 부치시는지 어딘지 좀 편찮아 보이신다.

선생님은 1927년 11월11일 함남 영흥군 인흥면 포하리에서 5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일제시대 원산만 해군기지가 가까이 위치했던 곳으로 지금은 금야군 포하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 비상한 기억력으로 홀로 편찬하신 족보의 표지에 금야록(金野錄)이라고 명명하신 연유이다.

한자까지 정확히 기록해 놓으신 금야록에는 조부 김시건 조모 한씨 부 김순삼 모 방방화님과 교범 교욱 교익아우들과 막내 여동생 정렬의 이름이 보인다.

지금도 모두 살아있을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

함남 영흥일대는 이북의 몇 안되는 평야지대로서 먼 부족국가 동예시대부터 우리선조들이 대대로 농토를 가꾸어온 땅이다. 따라서 일제시대 농토를 빼앗기고 열악한 기한부계약에 허덕이던 소작농들의 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었던 소작쟁의의 표본이 된 고장이었다. 1929년 10월에 시작된 그 유명한 영흥항일농조사건은 1933년 5월 5차에 걸쳐 영흥일대의 농민들이 떨쳐 일어난 것으로 일제에 분연히 맞선 민초들의 항쟁이었다. 1930년대는 소작쟁의가 절정에 이른 시기로 항일운동사에 빛나는 족적으로 남아 있다. 1928,9년에 일어났던 원산노동자총파업 역시 소작조차도 부칠수없어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들이 일으킨 불멸의 항쟁의 역사이었으니.

23년간 고용살이(머슴)속에서도 오남매를 키우신 아버지는 이러한 전통이 깃들어 있는 영흥땅의 농사꾼이셨다. 선생님은 부모님의 다함없는 기대와 사랑속에 성장하여 9세때 인흥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5세에 (1941년)졸업하였다.

이후 영흥의 명륜중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을 다녔으나 그만두고 홍남공업학교에 입학하려하였지만 빈농출신이라 수업료를 낼수없을 것이라고 입학이 거절되었다고 한다. 식민지 소년시절에 겪은 상처는 속으로 투사의 씨앗을 싹틔우고 있었으리라.

1943년 일제시대 강제로 보국대에 끌려나가게 되었고, 농업용수로 터널 공사도중 조명등 카바이트가 폭발하여 구사일생 살아났으나 이때 입은 화상은 지금도 그 흔적을 남기고있다.

19세 되던 1945년 아픔과 시련의 날을 접고 해방의 날이 찾아왔다. 20세 되던 1946년 2월 민청(민주청년동맹)에 가입하여 리 민청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놀랍게도 맹원번호 232303을 기억하고 계신다. 7월 28일에는 공산당에 입당하셨으며(8월 28일 신민당과의 합당이전) 당번호 40832는 선생님의 가슴에 지금도 훈장처럼 남아있다.

선생님은 이후 지금까지의 투쟁의 삶에 대한 기록을 출소 후 기억을 되살려 육필로 된 여러권의 자료집을 축성해 남겨놓고 계신다. 너무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기록들이라 행여 소실될까 염려스러운 마음을 권회장님 또한 몇번이나 말씀으로 되뇌이곤 하셨다. 많은 혁명열사들이 현장에서, 감옥에서, 또 병으로 작고하셨는데 생존해 계실때 이만큼 생생한 기록을 남기신 분이 또 계실까?

그러므로 해방이후의 살아있는 현대사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자료집의 편찬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1947년 보안간부학교(당시 군사관학교)에 합격하였으나 면당위원장의 만류로 입학을 포기하고 면에 남게되었다. 1948년 면 민청위원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군 민청지도원, 횡천면 민청위원장으로 정열적으로 복무하셨다. 이때 작년가을 북으로 송환되신 김인서선생님이 맹산군 민청위원장으로 활동하셨다고 한다. 이후 함남도당학교를 수학하셨는데 모스크바출신인 박영 도당위원장의 강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명강의였다고 한다. 선생님께서 감옥생활중에 옥중동지들과의 교양학습시 볼셰비키당사와 변증법적 유물론의 강의를 맡아하실수 있었던 것은 이때 배웠던 덕분이라고 하실 정도니까. 졸업후 군 민청선전부장(당시 전임강사)을 거쳐 24세 되던 1950년 군 민청부위원장으로 복무중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7월말 중앙민청(위원장 현정민, 부위원장 오운식)의 부름을 받아 민청공작원으로 15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남하하였다. 열차로 수색까지 이동하고 서울영보빌딩에 꾸려진 민애청사무실에 잠시 짐을 풀었다. 이때 서울대병원에 드나들게 되었는데 얼마전 '잊히지 않는 사람들' 이란 시집을 낸 류춘도박사가 그곳에 머물던 때였다.

당시는 중앙당 임시지도부가 대전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조직들이 대전으로 집결하였다. 천안을 지날무렵 참외한개로 배고픔을 달래며 8.15해방절을 맞이하였던 것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대전에서 김인서 선생님은 전남광주로, 선생님은 김병주동지, 표동지와 함께 경남 진주로 내려오셨다. 여기서 부여된 임무를 생명을 내놓고 맡아하셨다. 당시 인민군에 막급한 쌀과 포탄을 섬진강물에 적시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 밤새 넘어나르던 도하작전시 쌀 한가마니가 떠내려가던 것을 죽음을 무릅쓰고 헤엄쳐 건져내오던 일들을 말씀하실때는 새벽 물안개 자욱한 평온하던 섬진강의 모습이 생사의 파고를 넘나들던 긴박한 소용돌이로 바뀌어 눈앞에 펼쳐짐을 느끼게 했다.

굴절된 역사의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도 그 동상이 훼손되지않고 남아있는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선생님은 1950년 9월 28일 쌍계사와 화개장터로 유명한 화개면에 입산하셨다. 이때부터 지난한 빨치산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구빨치산 부대가 주축이 된 군당(위원장 심상태)은 청암면 묵계리로 입산하였고 군민청(위원장 강규준)은 화개면으로 입산하게 된 것이다. 12월 경남도 민청선

전부장(정치문화교양부장)을 거쳐 1951년 1월 황매산 블록책(지구당책임자)으로 임명되었다. 이때 당시의 이승만정권이 저지른 만행인 거창양민학살(51년 1월 18일)현장을 목격하셨단다. 산청출신의 곽노숙동지와 함께 목격하였는데 신원면 일대가 연기로 뒤덮였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뇌리에 남아있다고 하신다.

경남도당 남경우 위원장은 선생님을 도당정치공작대인 경남도당직속선행대장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오운식 중앙 민청부위원장은 당의 정통교육을 받은 이론가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력 천거하여 도 민청선전부장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치열한 전투가 밤낮을 가리지않고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인모선생님과 함께

52년 1월 빨치산전사에 참혹하게 기록될 대성골전투로 화제가 넘어가자 대성골전투는 분명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강한어조로 말씀하신다. 거림리 도당 비상조직위원회의에서 소조로 분할하여 이동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몇몇 소조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대부대로 합세하여 이동한 것이다. 쌍계사에서 세석평전에 이르는 대성골은 길이가 40리가 넘는 넓고 깊은 골짜기로 국방군 토벌대에 긴 빨치산부대들이 한꺼번에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이 전투에서 이영회사령관과 그부대원 30여명, 대성골 전투후에 도당선전부장이던 노영호동지등 몇 명을 제외하곤 삼천명에 달하던 경남부대가 거의 결딴났다고 한다.

당 일꾼중 30여년의 옥고끝에 장기수선생님들 가운데 가장먼저 94년 북으로 송환되신 이인모선생만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혼절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을 뿐이었다니 그 피바다를 이룬 참상이란…….

이 와중에 선생님은 열한명의 소조원을 거느리고 눈덮인 대성골 음지에 피신하여 하얀천을 덮고 일주일을 꼬박 버틴 끝에 소조원 12명 전원이 살아났다고 한다.

경남도당이 거의 희생된 대성골 전투이후 선생님은 도당 선전부부장과 마지막 경남도 민청위원장을 맡으셨다고 한다.

1952년 3월 사회단체는 모두 해산되고 도당,부대,군당만 존치시켰고, 52년 4월 선생님은 조선인민유격대 독립제8지대 정치부선전부장으로 복무하셨다. 당시 지대장이었던 이영회사령관을 선생님은 영웅이라고 부르신다. 53년 11월말 경의령해방투쟁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빨치산영웅이었다고 한다. 이는 항일유격정신을 계승한 빨치산활동이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신다. 또한 이때 마지막 빨치산으로 63년 오른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체포되어 지금은 인천나사렛한방병원에서 북으로 송환될 날만 기다리며 치료를 받고 계신 정순덕선생님과도 함께 투쟁했던 시절이었단다. 당시 정순덕은 남편을 찾아 뒤따라 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항상 등에는 아카보소총과 솥단지가 둘러메어져 있었다고 회상하셨다.

안타까왔던 것은 그들 부부는 항상 떨어져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다.

빨치산전사에 영원히 기록될 전사들은 수없이 비명에 갔다. 거창여고 출신으로 보급투쟁시 전사한 처녀빨치산 신옥경에 대한 우드렁재 전설도 뼈에 사무치게 기억하신다. 당차고 꿋꿋하며 억센풍모에서부터 으레 함경도 청년임을 연상케하는 선생님의 두눈에서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린다. 사모님께서 정성껏 담으셨던 머루주를 연거푸 드셨다.

"징역을 수십년 살며 그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것도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만 당시 빨치산으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다가 비명에 간 젊고 유능한 동지들의 혁명적 삶도 분명 재평가를 해야하지 않는가?" 라고절규하신다.

거친 숨소리와 형언할 수 없는 표정에 실린 오십년

전의 동지들을 떠올리는 선생님의 격정을 주체치 못하시는 모습에서 광폭했던 전쟁공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있는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만나고 있다.

선생님은 8지대를 계승한 손관일(여순 10월사건 주도자)부대조직부장을 거쳐 53년 4월 중국해방인민군출신 박문학부대 정치위원으로 발탁되어 덕유산에서 활동하시게 된다. 이때 노영호 북부지구당위원장은 후에 노영호부대를 편성하여 활약했는데 정순덕 선생님은 이 부대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53년 9월 1일 체제를 재편할 때 선생님은 북부지구당선전부장에 임명되셨다.

53년 12월 중앙당서류를 전달하려고 두명의 호위원과 함께 덕유산 북부지구당에서 지리산 조병화위원장에게로 출발하셨다. 조개골에 도착하여 임정택 도당 연락부장에게 서류인계후 이튿날 출발하려 하였을때, 국방군 토벌대의 대공세가 시작되었다. 기던중 유림면 장항리 노루목에서 호위원인 강동희 동지가 생가에 쌀을 얻으러 갔다가 발각되어 망을 보던 선생님은 혼자 탈출하게 되었다. 그 후 한달보름동안 기면서 지옥과 같았던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53년 1월 22일 함양군 서상면 뒷산에서 체포되셨다.

바위밑에서 지친몸을 잠시뉘어 잠을 자던중 국방군 5사단 수색대의 총구가 몸을 흔들어 깨우더란다.

54년 봄 남원포로수용소에는 300명정도의 동지들이 수감되어있었는데 대부분 국방경비법 제 32조 이적행위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중이었다. 선생님은 남원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구형, 10년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주교도소에 이송되었는데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홍진기가 전국에서 모범적인 전향교도소를 만드는데 전주교도소를 지목하고 방문하였던 터라, 그 악랄한 고문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북출신은 면회오는 사람조차 없어 생활필수품은 물론 배고픔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1958년 무렵 모두가 다 전향하고 최후의 7인만이 남게되자 마지막으로 발악적인 고문이 가해졌다고 한다. 7인중 한사람이었던 선생님은 독방에 손이 뒤로 수정에 채워져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 밥 먹는 시간에만 수정을 풀어주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전향을 거부하자 밥 먹는 시간에 맞추어 수정을 끌러주면서 순식간에 뒤에서 강제날인을 시켰다고 한다. 선생님의 울분은 뒤로하고 전주교도소의 100%전향소식을 전국적으로 방송으로 떠들게 되어 자책감으로 못내 괴로우셨다고 한다.

1959년 신축중이던 수원형무소로 이감되어 62년 8.15일 출소하셨다.

사고무친의 선생님은 화성 장안면 다리공사장에 막노동꾼으로 첫발을 내디뎠으나 그 공사장에서 감옥에서의 변절자를 만나자 그만 두었다고 하신다.

전주교도소에서 알게된 임인수씨의 고향인 금산으로 이주하여 남이면 석동리에서 개간과 인삼재배, 숯굽는 일등 닥치는대로 하셨다. 당시 임인수씨의 부친이셨던 임보균할아버지의 은혜를 아직까지 잊지않고 계신다.

다시 화성군 장안면 사곡리 홍천부락에 이주하셨고 낮에는 머슴생활 밤에는 사랑방 야학을 개설하여 동네 청소년들에게 영어 물상 역사 지리를 가르치셨다. 이때 경작하신 호배추 참외 수박등이 대풍을 이루어 동네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으며 신랑감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신 모양이다. 아직까지 너무나도 정갈하신 모습을 지닌 이해옥처녀와 63년 결혼을 하여 아들형제와 딸을 두셨다.

신부가 철공소노동자 가족이기에 우선 맘에 들었다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친말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지금은 장성하여 손주까지 안아보게 한 자녀들은 주위분들까지 모두 부러워할만큼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결혼후 처가에 잠시 머물렀으나 함경도 사나이의 억센 기질은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결혼반지를 팔아 대패 망치 톱등을 마련, 가방을 싸서 둘러매고 무조건 수원시내로 홀로 나오셨단다. 수원교도소에서 목수일을 좀 배우신 것에 근거를 두신 것이다. 공영콘크리트 공업 진흥주식회사 공사판의 날품꾼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설계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건설현장을 누비셨단다. 마지막 대농건설의 노동자로 소양강댐 건설현장에도 참여하였으며 남부럽지않은 오늘의 생활을 이루어 놓았던 그간의 피땀어린 고생을 어찌 다 쓸수있단 말인가. 지금의 머루덤불이 둘러쳐진 아담한 정릉집은 선생님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분들의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고, 후원회원들이 산행때마다 하산길에 들러 사모님의 다함없는 정성으로 베푸시는 만찬식장으로 자리매김 한지 오래되었다.

바램이 있으시다.

치열하게 살다 이름없이 산화해간 유격대원들의 처절했던 삶들을 일구어 모아내고 싶은 바램이다. 동지들과 함께 장렬한 삶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남았기에 갖는 작은 보상심리 때문일까? 선생님은 연거푸 그 산화해간 동지들을 부르고 다시 부르신다. 그리고 동지들의 뜻을 잇기위해서라도 남은 삶을 조국통일을 위해 다할 것을 다짐하시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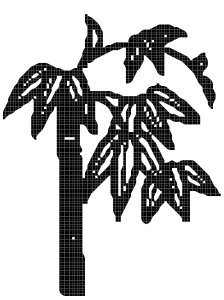
또한 꿈에도 그리던 영흥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있음을 믿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상봉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13세에 시집오시어 16세에 장남인 선생님을 낳으셨다고 한다. 선생님이 내려오실 때 40세이셨다고 하니 지금 91세 이시다.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은 효를 다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못내 가슴에 한으로 맺히시는 모양이다.

마지막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펼치시며 또 다시 격정을 토로하신다.

통일사업은 문턱이 낮아야한다 통일운동 세력들이 대동단결하지 못하는 연유를 분명하게 설파하시며, 통일운동세력들의 인간품성론에 대해 절실히 강조하고 계신 다. 후세대들의 앞날을 위해 더 많은 투쟁의 역량을 모아야 하며, 미군철수후에야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수 있으므로 6.15선언후의 실천적 노력과 투쟁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시며, 선생님은 이에 대해 부시정부와 미 우익진영에 대한 논문도 2편 작성해 놓고 계신다고 한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던 말씀들은 몇 밤을 하얗게 지새운다 한들 그 절절히 박힌 역사를 한쪽이나마 풀어낼수 있으랴. 밤늦게 선생님과 사모님께 인사드리고 벅차고 흥분된 발걸음을 옮겨 나왔다. 까만 하늘은 전등으로 위치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분명 요동치고 있음을 느끼며 회장님과 말없이 전철역으로 향하였다.



"우리 사회의 희망 한 조각"

이창희(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수습간사)

얼마 전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자들의 방에는 짙은 향내음이 퍼졌다. 97년 한총련의장권한대행으로 5년째 정치수배생활 중인 유영업씨의 외할머님이 돌아가셔서 빈소를 차린 것이다. 정치수배자의 신세인 탓에 친지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지 못하고 농성장에 조그마한 조문 자리를 마련하였다.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적에 외할머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외손자의 아픔은 얼마나 컸으랴!

국가보안법 수배자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

오랜 가뭄으로 햇빛마저 뜨거운 봄날, 명동성당에서 유영업씨의 둘째 누님 유정희씨을 만났다. 누님은 동생의 인터뷰 요청에 유치원에서 따님이 갑자기 손을 다쳐서 병원에 가야함에도 이 곳으로 왔다고 한다.

누님이 이야기하는 남동생 영업이는 대단히 귀한 아들이다. 누나 셋이후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버님 또한 독자인 손이 귀한 집안이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 학교갈 시간이 늦어져 영업이와 함께 논두렁을 뛰어가다가 그만 영업이가 스스로 넘어져 팔꿈치가 크게 상했는데, 누님은 그 일로 귀한 남동생 다치게 했다고 어머님한테 엄청 혼났다고 한다. 영업이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음에도 영업이는 그렇게 귀하게 자랐다.

귀하게 자란 영업이는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고향인 전남 영광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활달한 성격으로 줄곧 반장을 했다고 한다. 지금도 명동성당 농성장에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후배가 많이 찾아온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하기를 잘했다고 한다. 바른 말을 잘 해서 대학교를 다니며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조국과 민중을 향한 길을 간 것일까?

대학교에 들어가 어린 동생들에게 좋은 사회과학서적을 보내는 등 여전히 바른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식을 둔 탓에 가족들은 가슴아픈 피해들을 겪었다.

9년전 상경하고 곧 결혼하여 줄곧 서울 암사동에서 평범한 맞벌이 주부로, 8살, 5살된 두 남·녀 아이의 어머니로 생활해온 누님에게 난데없이 형사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삼촌이 왔다 갔냐?"고 묻고, 어린 아이들은 영업이의 남동생인 막내 삼촌이 가끔 왔다가기에 그냥 "삼촌 왔었어"라고 답하면, 그들은 당장 누님에게 찾아가 "동생을 숨겨주지 않았냐?"고 따졌다고 한다.

또, 어느날은 은행에서 계좌조사를 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한다. 공안당국에서 수배중인 동생에게 돈을 보냈을 까봐, 그리고 그 돈을 혹시 어느 곳에서 찾아썼는 지를 알려보려고 한 것이다. 부패정치인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은 계좌추적을 국가보안법관련 수배자인 한 대학생에게는 가족 전체에까지 마구 해대는 것이다.

그런 일을 겪은 누님의 마음은 너무 속상했다고 한다. 고향 면사무소에서까지 동생을 묻는 전화가 오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당하면서 왜 동생은 가족들을 힘

들게 하는 일을 했냐고 원망하기도 했다고 한다.

누님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논두렁을 가시다가 수배중인 영업이가 나타난 듯한 환영에 이끌려 그만 논두렁 밑으로 구르는 사고가 나서 생명마저 위독한 지경에 이른 경우 등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고통을 겪은 '아줌마' 누님은 요즈음 텔레비전 뉴스의 정치기사를 보면 한마디로 한심하다고 한다. 올해로 초등학교 학부모까지 된 누님의 정치에 대한 견해는 이러하다. "가끔 토론회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려울 것 같고, 개정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라도 빨리 되어서 동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민들이 살기 좋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치를 했으면..." 이렇듯, 한심하고 답답한 정치적 현실에 대한 한 아줌마의 바램은 직접적인 정치적 압박을 당했음에도 의외로 간결하고 소박하다. 필자는 인터뷰 도중 잠시 이러한 마음이 청소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아줌마들의 마음이라 여기고, 소박한 사람들의 꿈이 실현되는 사회를 소박한 사람들과 함께 빨리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소박한 마음을 지닌 누님의 귀한 동생에 대한 소원은 간결히 '정치수배해제' 이다. 동생이 정치수배해제가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는 의례의 마지막 질문에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 한끼라도 먹었으면 한다"라는 소박한 대답이다. 그리고, 누님의 따뜻한 마음이 묻어있는 "잠시 쉬었으면 한다. 그동안 힘든 수배생활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테니까 말이다"라는 이야기였다.

어느 덧 한 시간 남짓 한 인터뷰가 끝난 누님의 발걸음은 다친 따님 생각 때문인지 바빴다. 하지만, 매우 여유로와 보였다. 그것은 "아직도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 안된다. 하지만, 처음 데모할 적에는 정치적인 것에만 취해 있는 것 같아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집안살림이야기나 가족이야기도, 정치이야기 등과 함께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성숙된 것 같다"라고 동생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누님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정'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누님은 바른 생각을 지닌 동생이 가족 많은 가난한 집안을 이끌고 나갈 훌륭한 동생이 될 것이라는 큰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감옥에 있는 양심수나 아직도 거리를 떠도는 정치수배자의 가족에 대한 인터뷰와 달리 공개적으로 농성하는 정치수배자의 가족을 인터뷰하는 것에는 남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것은 양심에 대한 신념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함께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님과 인터뷰가 끝난 뒤 유영업씨에게 마땅히 그것을 지켜본 느낌을 물었다. "다른 수배자들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짧지만 정담긴 대답이었다.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생활 중 98년 겨울동안 하루 한끼밖에 못 먹는 라면에 질려서 조금의 생쌀을 가방에 넣고 허기가 올 적마다 씹으며 먹었다는 유영업씨의 이야기에서 필자는 '창살없는 감옥' 을 느끼고 '정치수배 양심수' 라는 말을 떠올린다. 그럼에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많이 생각나서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누나닮은 소박한 그의 이야기에 필자는 다시 '우리 사회의 희망 한 조각' 을 만지게 된다.

필자는 어느덧 계절이 순환하여 5월 17일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해제촉구 365일이 되지만 소박한 마음으로 농성하는 사람, 그를 지원하는 아름다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을 넘어 악법철폐의 절박감을 다시 한 번 각인하게 된다.

"소박한 이들의 삶과 희망을 위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이 길이 옳은 길이니까요'

이승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예술 매체가 우리의 집회 및 시위 문화와 뗄 수 없는 관계로 된 건 꽤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80년대의 그 치열했던 공간 속에서도 음악, 춤과 율동, 그림, 시 등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고 결의를 다지는 데 큰 몫을 담당해주었다.

유럽여행을 한 서정민갑회원 (사진 한가운데)

나는 며칠 전, 올바른 문예운동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회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현재 〈한국민족음악인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서정민갑 회원님이다.

내가 처음 서정민갑님을 볼 수 있었던 곳은 올해 1월에 있었던 인권단체 활동가들 단식농성장이었다. 그후 2월, 정치수배해제농성단 주최로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문화제' 자리에서 그와 정식으로 인사 나눌 수 있었고, 그의 소개를 준비하기 위한 만남은 며칠 전 실로 오랜만에 몇 만의 인파가 시청 앞 광장을 뜨겁게 메웠던 '111주년 노동절 행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듯 '집회' 자리에서 만의 만남이라면 누구든 그 사람의 단면만을 보게되기 십상인데 다행히 그날의 긴 대화 속에서 나는 서정민갑님의 진면목까지 감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만큼 그는 참으로 솔직 담백하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기꺼이 들려주었다.

'대학에 가면 운동해야지' 하고···

목포가 고향인 서정민갑님은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 올해로 서른 살이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소위 '사춘기 홍역'을 호되게 앓은 편이에요. 그 과정에서 시에 흠뻑 심취되기도 했고 책도 정말 많이 읽었지요. 전교조 겪으면서 「식민지의 아들에게」,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김남주 시집 등의 책들도 그때 읽어버렸었어요."

이 정도만으로도 그의 대학생활을 미루어 짐작케 해준다. 고3이 되어서는 학교 〈고교갯돌〉이라는 풍물패에서 민족극과 노래를 배우고 활동하며 '대학에 가면 학생운동 해야지' 하고 생각했었다 하니 더 이상 무슨 덧붙임이 필요하겠는가.

목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그는 1991년도 한양대 안산캠퍼스에 입학한다.

"워낙에 문학 쪽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전공도 별 망설임 없이 '국문학'을 택했어요. 또한 자연스레 과 동아리 활동 및 학생운동을 시작했구요."

고등학교 시절 이미 운동가요를 40곡 이상 익혔던 그는 신입생환영회 때 '단결투쟁가'라는 노래를 불러 선배들을 놀라게 했단다. 지난 날, 모 신입생환영회에서 별 생각 없이 불렀던 김민기의 '친구' 라는 노래 덕분에 (?) 선배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나의 경험이 잠깐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에게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으리라.

그의 학생운동 시절

서정민갑님이 대학에 입학한 91년도는 소위 '91년 5월 대투쟁'이 있던 해이다. 이 시기에 무려 11명의 열사들이 산화해 갔던 것이다.

"연이어 열사들이 나오는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동기였던 강경대 열사와 박성희 열사 등의 죽음 앞에선 더욱 그랬구요. 모든 집회에 꼬박 참석했었어요."

그가 가장 처음으로 '운동' 이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되

고 '운동은 논리로가 아니라 신념과 의리로 하는 것' 이라는 깨달음을 갖게된 게 바로 이 때였다 한다.

그후 3학년 1학기까지 통일선봉대, 과 조국통일위원회, 단대 사회부장 등의 활동을 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갔고, 2학기가 되면서 군 입대를 위해 휴학하게 된다.

그는 이후에도 쭈욱 그렇지만 늘, 하다못해 군 복무기간조차도 '운동' 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나(?) 보다. 93년 12월부터 18개월 간 방위병으로 복무를 했으니 상대적으로 생활이 자유로운 조건에서 그가 어찌 군 생활만 할 수 있었으랴.

"그 기간동안 내내 〈목포민주청년회〉의 '통일모임' 에서 활동을 지속했는데, 회원 대부분이 직장인이었던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좋은 만남과 경험들을 할 수 있었어요."

95년 4월에 제대하여 그해 가을학기에 복학한 그는 분열된 운동판의 모습 등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였다. 하지만 이런 기간 역시 그에게는 오래가지못했다.

96년도 들어서면서 단과대 '학원자주화추진위' 위원장을 맡아 일을 했던 것이다. 특히 96년은 노수석 열사의 죽음이 있었고 소위 '연세대 항쟁' 이 있었던 해이다. 그도 역시 그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러나 학교 내 운동판 분열이 지속적으로 그를 힘들게 하여 급기야는 쉬고 싶은 마음에 97년 들어서면서 휴학을 해본다. 하지만 그 해에도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학내 활동 및 모임을 함께 했고, 98년도에 다시 복학하여여름이 되기까지 그의 활동은 이어졌다.

그 이듬해 봄이 되어 마침내 그는 기나긴 학생 신분 및 학생운동을 마감하고 졸업을 맞이한다.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아버님이 경찰이셨다는데 그 분과의 마찰은 혹시 없었느냐고. "당연히 있었지요." 라고 곧바로 대답을 하는데, 아픔을 건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 이쯤에서 그만 두었다.

민음협을 알게 되고

98년 가을 경, 드디어 서정민갑님은 현재의 그의 모습이 있게 만들어줄 하나의 계기를 맞게 된다. 컴퓨터통신 공간을 통해 우연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에서 일꾼을 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그곳 '문예정보화 팀' 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후 99년 7월부터는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로 자리를 옮겨 4개월 정도 활동하다가 그 해 12월 경 〈한국민족음악인협회(민음협)〉에 들어가 지금까지 몸담아 오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그곳 '조직홍보팀장' 을 맡게 되는데, 이젠 정말 그곳에 자기 자리를 잡은 것인 듯 싶다.

"민음협에서의 활동이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사회운동단체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려왔던, 내가 바라는 단체의 모습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지요. 서로를 존중해주는 기풍 속에서 '사람에 대한 배려' 라는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었고, 예술운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어요. 비록 운동적 색채가 강하진 않지만 비교적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채로 끊임없이 진보 · 민족음악, 통일을 대비하는 음악문화를 추구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예총의 소속단체로 1989년에 창립된 〈민음협〉은 민족음악운동의 대중화, 활성화를 위해 300여명의 창작자, 연주자, 비평 · 연구가 등이 회원으로 있는 민족음악운동단체이다.

삶을 바꿀 수 있는 음악 문화여야

〈민음협〉 일꾼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서정민갑님은 민족음악운동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과 열정도 대단해 보인다.

"삶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고 예술적 완성도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만들어지는 게 저의 바램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방기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공감하여 편하게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이어야 하구요. 문화는 곧 삶이므로 삶을 바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음악을 통해 운동하는 것' 과 '현존하는 음악 자체를 바꾸는 것' , 이 두 가지를 통일시키는 방안이 앞으로 풀어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 좀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겠지만, 한마디로, 자본주의적 병폐로부터 양산된 건강하지 못한 음악문화를 생산적이고 민족적인 건강한 음악문화로 대체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일 듯 싶다.

서정민갑님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

이 있다.

"지나온 현대사의 과정과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을 접목시켜 도식적이지 않은, 보편적으로 감동할 수 있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연극 '지하철 1호선'과 영화 '박하사탕'의 결합은 어떨까요..."

그는 앞으로의 자신의 전망을 〈민음협〉의 활동이 제대로 잘 되는 날까지 그곳에 뿌리내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날은 곧, 우리 민족의 삶과 뜻이 담긴 음악을 많이 창작해내고 원활한 유통구조 속에서 보급도 잘되어 좋은 음악이 가득찬 사회가 되는 날, 사람들이 늘 입가에서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의미한단다.

그런 연후엔 다른 사회단체에 들어가거나 글을 쓰고 싶다고 한다. 실재로 그는 현재 인터넷 '오마이뉴스'의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양심수후원회와의 인연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는 99년 봄에 가입했다고 한다.

"민가협의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저에게도 그렇지만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거울'인 것 같아요. 그분들 앞에서 누가 무릎 꿇는 심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소식지 발송작업 등의 일이나 정기산행 등의 행사에 더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에요."

다달이 상근활동비를 받게 되면서부터 그는 후원금을 내고 싶은 마음에 양심수후원회에 들어왔다 한다. 활동비라야 몇 푼 되지도 않을텐데 그는 추모연대, 전국연합 등에도 후원회원으로 있다.

올해 2월부터 명동성당의 정치수배해제 농성단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문화제'가 다섯 차례 개최되어 왔다. 여기서 서정민갑님은 그곳 진재영 농성단장과 문화제 기획 일을 함께 해주었다.

"명동에서의 농성 모습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어요. 민음협이 그동안 이런 일을 많이 못해와 앞으론 열심히 해야겠단 생각입니다. 언제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문화제도 제대로 된 집체극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지요."

오는 5월 26일 저녁 그곳에서 여섯 번째 '문화제'가 열릴 예정인데, 아마도 또 그의 활약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젠 운동에 익숙해진 것 같아

서정민갑님은 지금까지 운동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자신의 내재된 힘에 대해 물어오면 가장 먼저 91년도의 '열사 대투쟁' 경험을 떠올린다. 열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 하고 이제는 운동에 익숙해진 것 같다는 그는 또 힘주어 말한다.

"이 길이 옳으니까요. 만나는 사람들도 좋구요. 이 길이 옳지 않으면 떠나겠지만 그런 생각은 아직 한번도 안 해봤어요."

그는 현재 동생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은 자신이 아직 준비가 안 돼있는 것 같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친한 여자친구는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나름의 사랑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랑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을 뿐이라 생각해요. 혁명적, 동지적 사랑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그건 곧 진짜 사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목숨걸고 할 것 같아요..."

그는 자기자신에 대해,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이해심은 많지만 조급하고 자유분방하며 인간관계를 잘 못 풀어가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성적이고 눈물도 많고 호기심도 강한 편이라고도 했다.

그의 그런 모습을 실재로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내가 본 그는 참 솔직하고 끈기있는 청년이었으며 지나치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고 세심한 예술운동가의 단면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서정민갑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모두 잘 이루어져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기 소개할 때 꼭 써달라고 내게 부탁했던 그의 말을 남기며 이만 글을 맺고자 한다.

"앞으로 문화행사 준비할 때 저희 〈민음협〉도 꼭 불러주셨으면 해요. 언제나 함께 해나가고 또 함께 발전해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산행"

정형근(민가협 양심수후원회원, 제빵기사)

오늘은 내가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후원회 산행일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를 끄고 보니 시간은 9시50분. 전날 중학교 동문회 갔다가 늦잠을 자게 된 것이다. 빠른 행동으로 옷을 갈아입고 정신없이 나의 애마를 끌고 그린파크로 향했다. 지각을 한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러나 일행들은 나를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었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도선사 주변도로에는 불등이 걸려 있었다. 저 불등에 우리나라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 우리 모든 서민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기를 담아 보았다. 회원들과 이런저런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나오라는 산은 안나오고 끝이 안보이는 도로를 올라가는데 벌써부터 힘들어졌다.

진달래가 만연히 피어있는 북한산을 올라가니 사회생활에 찌들고 심신이 지쳐있는 나에게 항상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로 다가 왔다. 거의 1년만에 오르는 후원회 산행. 나에겐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산행 내내 영광의 꼴찌로 올라갔다. 내가 산행 일원 중에 나이는 제일 적은데 이렇게 산을 못 오르니 정말 창피했다. 드디어 즐거운 점심시간. 오랜만에 산에서 먹는 밥은 정말 꿀맛이었다. 여기에 맛있는 사발에 막걸리 한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산해진미가 있으랴. 더욱더 좋았던 건 집회 때나 멀리에서 좋은 연설을 들었던 범민련 의장님의 살아오신 경험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을 들은 것과 보현이 누나가 준비해 온 미국의 TMD, NMD 정책에 대한 설명. 나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 오랜만에 함께 한 산행에서 나의 소개를 거창하게 하고 싶었는데 회장님이 다 아는 사이인데 하지 말자고 하셨다. "옛날에는 회장님이 다 알아도 소개는 꼭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은 서운했다. 이제는 편안하게 내려가는 길. 나와 승미 누나는 내려 갈 때도 항상 뒤에서 동지적 관계로 같이 사이좋게 내려갔다. 이번 산행에서 승미 누나와 추억이 많았다. 누나가 내려오는 걸 지켜보다가 미끄러졌던 일. 일행들과 너무 뒤쳐져서 미아가 되어 헤매었던 일. 아무튼 힘은 들었어도 정말 재미있었고 추억에 남을 것 같다. '누나 우리 다음 산행에는 맨 선두에서 후원회 산행을 이끌면 어떨까요'.

너무나 힘든 산행이었지만 하산하여 4·19묘역을 찾았다.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정신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아직도 영령들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비통하고 애통했다. 그래도 나는 믿어본다. 우리 민중들이 힘을 합쳐 꼭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뒷풀이는 회장님 댁에서 맛있는 삼겹살 파티였다. 많은 것을 듣고 배웠다. 다음 산행은 더 많은 회원들과 공기 좋은 산에서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

임태열님께

얼마전에 명동성당에 몇그루 안되는 꽃나무들 아래서 사진을 찍으며 부산을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진 속에 함께 했던 목련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나무들의 푸르름에 매일 매일 감탄하며 명동성당을 거닐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명동성당에 거의 매일 오곤 한답니다. 물론 저는 수배자가 아니므로 농성당원은 아니지요.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단국대 95학번 안은현이라고 합니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원이지요. 학교를 올해 정리하고 나오면서 아직 전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던 중 후원회 간사로 계시는 선배의 권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이곳 농성에 함께 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명동성당 농성단을 찾은지 얼마 안되어 바로 여기서 선배님의 아내되시는 분과 예쁜 딸 지원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잘 안기기도 하고 똘망똘망한 모습에 농성단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던 지원이의 모습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성단이 마련한 문화제때에 언니께서 편지를 낭독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분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남편을 '영웅' 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시는 모습에 부부지간의 믿음이 저런거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부러운 마음마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언니와 딸 지원이와 저와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임태열' 이란 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선배님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검찰조사를 받으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신 편지, 기억 나실지 모르겠네요?

한 달에 4-50만원을 공짜로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가진 대학동기의 조선일보 기자라며 검찰조사에 함께 했던 얼마 있으면 노가다 돈이 나오지만 벌금 47만원에 옥살이를 하시게 된 할아버지. 이 두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누가 가슴 저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소외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시겠다는 다짐을 다시 떠올리는 모습에 제 얼굴이 많이 부끄러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임태열' 이란 이름 석자가 제 머리 속에 선명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배님과 저와의 첫 인연이라고 자축(?)하며 이렇게 편지까지 쓸 용기를 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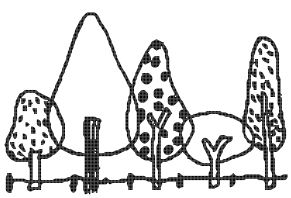
학교를 정리하면서 이곳 명동성당 농성단과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선배님과의 이런 계기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감에 지금은 마냥 기쁘고 설레이기만 합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곳에는 겨울과 여름 두 계절뿐이 없다고 들었는데, 밖도 요즘은 그렇네요.

너무 짧은 봄을 아쉬워하며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001.4.24

안은현 올림



안은현 회원은 단국대 양심수후원회장을 하다가 지금 민가협양심수후원회원으로 정치수배해제 명동성당 농성단에서 자원활동를 하면서 '양심수에게 편지쓰기' 주체를 맡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일은

안은현님께

보내주신 편지 고맙고 기쁘게 잘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 들어와 앉아 있으니 이런 기분좋은 일도 생기는군요. 거리를 지나가거나 혹은 지하철에서 선전활동을 하는 청년학생이나 다른 활동하는 사람을 마주칠 때 언제나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싶고 차나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볼일 보러 시내에 나갔는데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을 받고 있더라구요 빨리 일마치고 다시 구경하러 뛰어 왔는데 벌써 사라졌더라구요. 1시간 정도 밖에 안됐는데 …. 그때 그 섭섭함이란… 은현님에게 편지를 받은 것은 이를테면 그 서명받던 사람들하고 어찌어찌하다 말이 통해서 어디가서 자리잡고 앉아서 인생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저와 저의 가족들은 사실 사람이 그리운 그런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일은 저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더 가슴뛰는 즐거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엄마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팔불출이라죠?) 제가 얘기해 놓을테니 기회를 봐서 지원이도 볼겸 한번 만나 술 한잔 하시든가 하세요. 우리 집사람 원래 학교에서 유명한 "데모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는 바람에 그 꿈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실은 집사람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지원엄마가 훌륭한 것은, 그리고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점은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 (남편도 사실 자기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남이지요) 자신의 꿈을 유보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자기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실 결혼한 부부중에도 동상이몽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소가 닭보듯 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지원엄마가 저를 보고 '영웅' 이라고 했다는데, 결혼을 제대로 한사람이라면 사실은 남편과 아내 둘 중 하나만 영웅인 경우는 없답니다. 둘 다 영웅이거나 둘 다 아니거나 그렇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부는 둘다 '영웅' 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요.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채워 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황이 어쩔수 없기도 했지만 지원엄마가 희생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여기 가만 앉아서 요즘 지원엄마 여러 사람 만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거 구경하면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빚 잔뜩 진 빚쟁이가 빚 갚는 느낌이 이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 꿈도 노동대중들 속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이다." 라는 레닌의 말입니다. 이말은 저는 "머리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 (지식이라든가 체화되지 않은 신념이라든가)은 언제가 변화하거나, 퇴색한다. 그러나 온몸으로 세상을 깨우쳐 나가며 얻은 것, 삶의 실천을 통해 얻는 어떤 것이야 말로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진 대학졸업간판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잘 살아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노동하는 민중들속에서 삶의 진리를 좀 더 깨우쳐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진리야 말로 참으로 단단한, 영원히 변치않을 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리로 무장해야 참된 민중의 아들로 불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지를 쓰다 보니 내 마음 밑바닥에 가라 앉아 있는 생각을 끄집어 내서 이야기 했네요. 실은 어제. 오늘은 수사기록을 죽 검토했답니다. 별로 한일도 없는 건달일뿐인 나를 위해서 검찰에서 재판부에 2천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겼다군요. 기록 만드느라고 여러 사람 고생했겠더라구요. 참 재미있게 읽고 난 후의 제 결론은 "판.검사는 국가보안법 몇조 몇항이 어떻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고, 하겠죠. 그러나 나는 나 할말을 하겠다는 거죠.

명동성당에서 농성하시는 분들 잘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동성당측과 마찰이 있지는 않은지, 식사는 꼭꼭 챙겨드시는지, 두루두루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믿음 놓지 않으셨으면 하구요.

그럼 오늘은 이만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1.5.2 서울 구치소에서

임태열 드림

임태열님 (서울대 85학번)은 올해 3월 6일 발생한 소위 '민혁당' 사건 3차 구속·연행자로써 지금 서울구치소에 85번으로 수감 중입니다.

벽조목 같은 삶, 사랑

-대구옥의 재춘 형을 생각하며

유병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민족21’ 근무)

얼마 전에 벽조목으로 된 열쇠고리를 선물받았어요

도장으로 쓰면 좋다고 해서 몇 군데 알아보니

다른 목도장 파는 비용의 서너 배가 더 드는 거예요

나무가 단단하고 쓸모가 좋아 그렇다고 하면서 …

도장 하나 파는 돈으론 만만치 않아

어째야 할까 고민하다

제대로 된 것 하나가

대충한 것 서너 개보다 낫겠다 싶어

제 이름 석 자 파 넣었죠

그러면서 형 생각을 했어요

대춧빛 얼굴은 귀인상이라며

제가 농을 걸기도 했잖아요

신혼살림 한참 단 꿈을 꿀 때

국가보안법 벼락을 맞아 잡힌 재춘 형

형보다 형수의 심사가 더 애틋하겠지만

그래도 대추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벼락을 맞고 나면

더 단단해지고 쓸모가 있어진다고 하니

형의 삶, 형과 형수의 사랑은

벽조목처럼 단단해질 거라 믿어요

흔하디 흔한

그래서 부스러지기 쉬운 나무가 아니라…

이종환선생님, 삼가 명복을 빕니다

갑자기 들려온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통일조국 염원만으로 43년 옥고를 치루면서도 스스로 선택한 신념과 양심을 지켜 오셨고 1993.3.6일 비전향으로 축소 하셨다가 지난해 9.2일 신념의 고향으로 가셨던 이종환선생님께서 평생의 염원 그 마지막 영광을 마져 다 보시지 못한 채 2001.4.30.일 10시30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으로 목이 메이고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 오랜 폭압에서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었던 신념의 강자이면서도 누구못지 않게 자애로우셨던 그래서 떠나보내 드린 뒤 그렇게도 다시 뵈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굳게 약속한 일을 잊으셨는지 다시는 그 인자하신 모습을 뵈올 수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22.10.7일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하리(인천시 부평구 계산동)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 나셨습니다. 선생님세대라면 대부분의 조선민중이 겪어야 했던 일제 식민지지배와 잔혹한 수탈시대에 유년 · 소년기를 보내셨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 4학년까지 다니던 보통학교마져 그만두고 소년가장으로 일제의 탄압과 빈곤을 떠 안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배관 견습공에서 숙련 기능공까지 거치면서 어머님과 어린 동생들을돌보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일제의 패망과 해방조국의 날을 맞이하여 선생님께서는 노동자로서의 생업과 함께 민주청년동맹과 당에 입당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1946년 가정을 이루었고 47. 49년에 결쳐 두따님을 보시기도 했습니다. 전쟁시기 부평인민위원회 수매소에서 일하시다가 의용군에 입대 전선따라 전장에 계시다가 휴전선부근에서 미군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연히 전쟁포로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경비법 32조를 적용 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이어 재심에서 33조를 적용시켜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뒤에 무기로 감형 받았지만 선생님께서 43년을 갇혀 있어야 했던 이유는 조국통일염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잔혹한 고문에도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 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형 집행정지로 감옥문을 나섰지만 머무를 곳도 가족 친척도 없었기에 아산요양원으로 가셔야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6월 양심수후원회에서 마련한 봉천11동 만남의 집으로 오시어 조창손 선생님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려는 선생님 뜻대로 서울에 오신 다음해부터 연립주택 경비원으로 5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터를 지키시는 집념을 보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마침내 평생 염원이었고 신념에 따라 남북 온겨레의 요청으로 6 · 15남북공동선언의 첫 번째 실천사업으로 동지들과 함께 북녘땅, 신념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아 오시기는 했었지만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경축행사때 평양에 갔었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대표단과 벅찬 감격의 상봉이 있었을 때까지도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참으로 뜻밖의 슬픈 소식을 맞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향했던 세계에서 동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셨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했던 통일조국은 남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고이 잠드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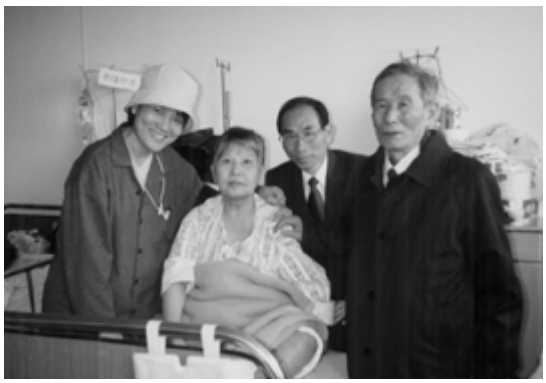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이종환선생님의 어제와 오늘

1922.10.7.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하리 374 번지 출생
1933. 부평공립보통학교 4년 중퇴
1942. 배관기술 익혀 배관기능공으로 취업
1943. 일본에 건너가 배관공. 선박공으로 취업
1944. 부평 조병창 등에서 배관공으로 취업
1946. 민주청년동맹 -조선공산당 입당
1950. 부평인민위원회 수매소에서 일하심
1951. 10 인민군으로 참전중 경기도 연천에서 체포(전쟁포로)
1952.8.15. 국방경비법 32조 적용 15년 선고
1953. 7.25. 국방경비법 33조 적용 사형선고
1954.2.27. 무기형으로 감형 온갖 폭압으로 사상전향 강제했으나 끝까지 지켜내심
1993.3. 6. 형 집행정지로 비전향으로 출소 - 아산요양원으로 가심
1993.6.19. 양심수후원회에서 마련한 봉천동 만남의 집으로 조창손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심
2000.9. 2. 비전향 장기수 송환 조치로 북녘으로 가심
2001.4.30. 오전 10시 30분 79세의 일기로 운명하심

이제 아버님이 제게 주신 채송화 꽃씨만 남았나요?

이정규(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작년 9월 6일 아침 북악파크 호텔 앞은 기뻐만 하기에는 헤어짐이 너무나 서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손잡고 부둥켜 안으며 잘있으라고 잘가시라고 인사하고 또 하고 했어도 버스가 우리들을 안과 밖으로 갈라 놓자 우리는 차창에 매달려 두들기며 모두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만나자'는 말에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손을 흔들었는데 그것이 선생님과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처럼 눈물 보이지 않으시던 선생님도 버스에 오르시기 전 엉엉 우시며 '다시 만나자'고 다짐하며,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그 헤어짐이 이제 영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생님 북으로 가시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하지만 허전하기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신림역에 내려서 7번 출구로 나가면 국회상회로 가는 마을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봉천동 고개를 구비구비 도는 그 마을버스를 타면 선생님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하시던 마을이 있습니다. 김중종 선생님이 사시던 집도, 조창손 선생님 사시던 집도 그 마을에 있었지요. 선생님 가시기 전 그 마을버스를 자주 타지 못해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마을버스를 탈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제 습관은 남아서 아침마다 마을버스를 타려고 줄서 있는 사람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실 그 방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며 이제는 마을버스가 아닌 고려항공이나 유람선이라도 타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제 금강산 가는 유람선을 타고, 고려항공을 타고 어디를 가도 선생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북으로 가시기 전 날 밤, 그 날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8년 전 선생님을 마중하러 대전 교도소로 가기 전 날 밤, 그날도 밤을 꼬박 샜습니다. 제가 살아 왔던 평생의 시간보다 더 길고 긴 시간, 감옥의 시간, 세상의 시간, 단절의 시간, 그리움의 시간, 싸움의 시간, 1년 365일이 아닌 일초 일초의 삶들이 존재하는 시간, 그리고 혁명의 시간, 혁명가의 시간. 그 어떤 의미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 그 추측되지 않는 그 시간들이 너무 무섭고 서럽고, 43년 감옥에 계시다가 나오시는 선생님을 뵙는 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선생님은 감옥에서 43년만에 나오셨는데도 연고자가 없다고 다시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지만 곧 양심수후원회에서 서울 봉천동에 마련한 집으로 오시어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43년간 0.75평 독방에서 징역을 산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깨고 한없이 맑고 고운 미소에 선량한 마음씨를 담뿍 담고 채송화씨 한 주먹을 가지고 오셨지요. 교도소 담장 아래 햇살 모이는 곳에 봄이 되면 손수 뿌리고 가을이 되면 거두어 모으신 꽃씨. 이감을 가시면 또 이감가신 감옥 마당 한 켠에 뿌리고 심고 하시던 씨앗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잘못 심어 죽이면 어쩌나 싶어 심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책상 서랍에 고이고이 넣어둔 채송화 꽃씨. 아마도 선생님이 가꾸고 보살핀 채송화들은 선생님의 그리움을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시듯 담담하게 말씀하시고 한결같으신 모습이셨지만 채송화를 가꾸시던 손끝마다 베어 있을 선생님의 그리움을 어찌 다 말로 표현을 할까요.

갑자기 송환이 결정되고 시간은 가는데 선생님의 두 따님이신 정임과 정애. 그리고 사모님의 행방을 알 수가 없고 팔월이 다 지나도록 소식하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선생님의 처제를 찾아 그 댁을 방문했으나 '나는 형부가 없소'하는 말씀과 냉대. 다음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땡볕 쏟아지는 신작로를 걸어 나올 때는 너무나 서글프고 선생님이 가엾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다시는 저 댁에 찾아가서 힘들게 하지 말자'고 하시며 '괜찮아 괜찮아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 하셨습니다. 체포 전 선생님 사시던 마을에 아직도 살고 계시는 조카도 찾아 갔습니다. 마치 딸을 챙기듯이 이것저것 챙겨서 한 짐 지고 가셨습니다. 앨범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선생님이 가지고 가시고 하나는 혹시 모르니 조카를 주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식구들 나누어 입으라고 속옷, 양말도 챙기시고, 어려운 살림에 보태라고 선생님이 경비일을 하시면서 모으신 얼마간의 돈도 주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가족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가시기 바로 삼사일 전이었던가요. 만나주기를 거부하시던 처남을 찾아갔습니다. 굳이 만남을 거부하시던 분들과의 만남이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옛날 이야기 서로 주고 받다 보니 분위기가 금방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가족들이 모두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저만 '확실한가요, 누구에게 들으셨나요?' 따위를 물었습니다. 처남댁도 저도 마구 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선생님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임. 정애. 두 딸은 잃었지만 남쪽에 남은 딸 정규가 있잖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시며 '죽을 때까지 하나 남은 딸 정규를 잊지 않을거야' 하셨는데 하나 남았다고 하는 셋째 딸도 아버님이 암으로 고통 중이실 때도 함께 하지 못했고 임종도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이 제게 주신 채송화 꽃씨만 남았나요?

내년 봄에는 제게 주신 씨앗을 심어야겠어요. 꽃을 피우고 나면 씨를 거두고 다시 심고 하며 늘 아버님의 삶을 통해 배웠던 진리와 신념을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부디 이제 편안히 쉬시고 남쪽에서 늘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특히 선생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던 "옴씨롱 감씨롱" 식구들을 지켜 주십시오. 말씀보다 삶으로써 보여주신 것들 바르게 실천하며 평생의 염원이셨던 조국통일에 가진 힘들 쏟아 붓게 하소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6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16차 총회가 4월 7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서울과 지방 민가협 회원, 출소장기수 선생님과 사회단체 축하손님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열렸습니다.

서경순 전 상임의장과 남규선 총무 공동사회로 박용길 공동의장의 대회사에 이어 권오헌 공동의장의 오신분 소개, 민족시인 이기형선생님의 축시낭송, 임기란 상임의장의 2000년 사업과 재정보고, 권처홍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광주·전남, 부산, 대구 지방 민가협 활동보고가 있은 다음, 권오헌 공동의장의 2001년 사업계획안 제안설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감사선출에서는 2000년 감사 권처홍, 안옥희, 유종인님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리고, 민가협 창립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박용길 장로님과 민가협 목요집회마다 함께 하며 노래공연 등을 해온 성균관대 노래패 '아우성'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김정숙 전 상임의장의 총회결의문 낭독으로 1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2부는 연출가 김정환씨의 사회로 지난 해 조선노동당창건 55돌 경축대회때 참관자로 참석하여 촬영한 비전향 장기수선생님들 상봉 등 '평양다녀온 영상'을 남규선 총무의 설명으로 상영하였고, '아우성'의 축하노래, 양심수가족들의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웅변대회 심사위원회(안학섭 선생님외)는 1등에 최원석 어머님, 2등에 장창준 어머님, 3등에 정명도 어머님과 이중주님으로 발표하였고, 수상자들은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상품을 받으셨습니다.

2부 순서를 마치고 3부는 음식점에서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노래를 부르며 뒤풀이를 가지면서 새로운 1년의 힘찬 투쟁을 다짐했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3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3차 정기총회가 4월 21일 오후 3시30분 홍사단 중강당에서 민족시인 이기형선생님을 비롯하여 장기구금양심수선생님들과 민가협 어머님들, 유가협, 범민련남측본부, 전국연합, 민자통, 4월혁명회, 민주노동당, 한학협, 사민련 등 단체대표 및 이재정, 김성호 국회의원 등 축하손님과 회원 등 1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호현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민중의례에 이어 김금수 지도위원의 모시는 말씀, 오신 분 소개(권오헌 회장)에 이어 '푸른영상' 에서 제작한 '지난 1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걸어온 길' 을 상영했고 천리마 노래단의 축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임기란 민가협상임의장, 박정기 유가협회장, 장기구금양심수 고성화선생님,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의장, 전국연합 오종렬의장,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 등의 애정어린 격려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준비위원장이신 박용길 장로님의 총준위 경과보고와 권오헌 회장의 12차년도 사업보고, 노중선 감사의 감사보고를 인준하고 곽인석, 주경임 회원의 제안에 따라 총준위안으로 운영위원을, 직접선출로 감사를 뽑는 임원선출이 있었고 탁무권 회원님이 제안, 설명한 13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정없이 채택하였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13차 정기총회는 12차년도에 특별히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리의 숙원인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와 "2차 장기수선생님 송환", "인권 및 민주주의 발전, 6.15공동선언 지지와 이행" 등에 대한 회원들의 전체 의지를 모아 송창학 회원님께서 힘차게 총회결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참가한 사람은 총회이후 길 건너편 구일미식당에 정성껏 마련된 식사를 하고, 근처 커다란 호프집에서 오랜만에 장기수선생님들과 회원들이 어우러져 뒷풀이를 하였습니다.

13차 총회에서 새로 뽑힌 일꾼들

지도위원(추대)

김승훈 (시흥성당 주임신부)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용길 (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임, 민가협 공동의장)

홍근수 (향린교회 담임목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회장단

회　장 : 권오헌 (다시 뽑힘, 민가협 공동의장)

부회장 : 김지영 (다시 뽑힘, 의사, 인의협 인권위원장)

이기욱 (다시 뽑힘, 변호사, 민변 동북아 특별위원장)

운영위원

김호현(다시 뽑힘, 애니유저넷 이사)

송경용(다시 뽑힘, 성공회 신부, '나눔의 집' 공동대표)

이정규(다시 뽑힘, 푸른 영상 사무국장)

탁무권(다시 뽑힘, 노원문고 대표)

한상권(다시 뽑힘, 덕성여대 교수)

모성룡(새로 뽑힘, 홍제현대유치원 원장)

이정태(새로 뽑힘, 민족무예 '경당' 사범)

감사

김규철(다시 뽑힘, 민자통 상임의장)

진관스님(다시 뽑힘, 불교 인권위원장)

노중선(다시 뽑힘, 사월혁명회 사무국장)

※ 93년부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후원회발전은 물론 민주주의발전과 인권신장에 애써 온 송소연님이 민가협 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오심에 감사드립니다. 후임으로 학생운동간부로 정치수배를 받았었고, 조계사 농성단에 있다가 풀린 이창희님이 수습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패를 받은 회원

이민숙 회원
고난 받고 있는 양심수와 오랜 옥고에서 풀려난 장기구금양심수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그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며 오랫동안 큰 성원을 다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명숙 회원
고난 받고 있는 양심수와 오랜 옥고에서 풀려난 장기구금양심수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그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며 오랫동안 큰 성원을 다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명희 회원
고난 받고 있는 양심수와 오랜 옥고에서 풀려난 장기구금양심수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그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며 오랫동안 큰 성원을 다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문성 회원
고난 받고 있는 양심수와 오랜 옥고에서 풀려난 장기구금양심수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그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며 오랫동안 큰 성원을 다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오로시
오랜 옥고에서 풀려난 장기구금 양심수 정순덕 선생님 등에게 꾸준히 간병활동을 해오고, 회원활동에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당의원
인도주의 정신으로 보건의료활동에 앞장서서 장기구금양심수 선생님들의 건강을 항상 친절히 보살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지영 내과의원
인도주의 정신으로 보건의료활동에 앞장서서 장기구금양심수 선생님들의 건강을 항상 친절히 보살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송소연
어려운 조건에서 오랫동안 양심수후원회 사무국 간사로 있으면서 고난받는 양심수의 석방과후원사업에 헌신해왔고 이 땅의 민주주의발전과 인권운동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01년 4월

02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사단법인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 주최로 늦봄 문익환목사 방북12주년 기념토론회가 '늦봄의 통일사상과 민족통일의 과제'란 주제로 열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양민학살유족 40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정에서 가려야하는 시대적 소명에서 거창군일대 등 현장검증과 1951년 대구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청.

03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대표들이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이적규정철회, 9기 한총련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다. 이어 임기란, 오종렬, 한상렬, 권오헌 대표 등 경찰청 방문, 한총련 9기 대의원대회개최보장 촉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부마항쟁 희생자 전병진(50)시 등 107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

일본역사교과서 개악저지운동본부는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역사왜곡교과서 채택반대운동 방안' 등 기자회견을 갖다.

04 홍사단 강당에서 '2001년 반미투쟁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 주제로 자통협주최 반미토론회 열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남북이 함께 하는 월간 민족21 창간기념식' 열림.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한총련 대의원대회 원천봉쇄규탄 및 평화적 개최보장촉구 기자회견'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관으로 갖다. 오종렬, 권오헌, 한총련 임시의장 등 규탄연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박만)는 재미동포 송학삼(뉴욕민족통일학교 교장)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

06 서울교대 교정에서 '참교육의 횃불로 살아오르는 길' 박선영·남태현 열사 합동추모제 열림. 서울교육대학 추모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유가협, 민가협 회원들과 교대 교수, 학생들 함께 함.

낙성대 '만남의 집' 화장실 등 물 새나가는 것 막음공사.

한총련 9기 대의원대회가 5~7일째 홍익대학교에서 6천여 한총련 소속 학생들과 범민련,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민가협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한 가운데 학생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법적, 사회적 합법화, 운동의 대중화 의지를 강조하며 3년만에 의장선거를 경선으로 치루었음. 4월 6일 870명의 대의원가운데 617명의 대의원이 참가, 부산대 총학생회장 최승환 후보가 338표를 얻어 전남대 총학생회장 이용헌 후보의 274표에 앞서 9기 한총련의장으로 뽑힘, 이날 밤 의장옹립식과 문화공연,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음.

0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가 열리다.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 경기동부지역 주관으로 국가보안법폐지 문화공연이 회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열림.

종묘공원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주최로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

명동성당들머리에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토요캠페인을 농성단과 양심수후원회원들이 함께 진행함. 이창희, 송창학, 곽인석, 한수정, 안은현, 남보현, 이정태, 조경래 회원등이 참가함.

08 경희대 종합강의동에서 '사월혁명, 민족통일운동, 민주변혁운동 지도자 이수병선생 26주기 추도식'이 유족들과 인혁당관련 여러분과 유족들, 사월혁명회 회원등 사회단체대표들과 청년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림.

09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2차 사업년도 후반(2000.12~2001.3) 사업 및 재정에 대한 김규철, 노중선 감사님의 감사가 있었음.

명동성당문화관에서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사법살인 당한 인혁당 희생자 26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림.

전국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언론회관에서 '미국의 MND·T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시정권의 군비증강정책의 즉각 중단 등을 주장.

10 서울구치소 재소자처우 및 인권과 관련, 이른바 민혁당가족과 대책위원들이 구치소앞에서 시정촉구캠페인을 벌이고 권오헌대표 등 박도석 소장을 면담. 면회시간, 의료시설, 서신, 도서반입, 과밀수용 등 양심수처우문제 시정촉구. 박도석 소장은 재소자처우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답변.

도서출판 살림터 '김정일의 통일전략' 출판과 관련 증인으로 섰다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 혐의로 구속재판 중인 송학삼 민족통일학교 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함.

양심수후원회 제13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2차 모임과 12차년도 12차 운영위원회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림. 13차 연도 예산안, 모범회원 선정, 임원선출안 등 심의와 총회 보고서 제작안, 총회 준비 등 점검

서울지법 민사37단독(장준형 판사)은 매향리 미군국제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 전만규 주민대책위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

인천지법의 '노조사무실 출입허용' 결정이 4.6일에 있은 다음 대우차 노조원 350명은 부평공장 인근 산곡성당을 떠나 회사앞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의 부당한 제지를 받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노조원들을 곤봉과 방패로 마구 찍고 패대고 폭행을 자행. 조합원 유희태씨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박훈 변호사가 골반뼈가 다치는 등 50여명이 골절, 장파열 등 크게 다쳐 주안사랑병원등에 입원했으며, 현장에서 경찰은 21명의 조합원을 불법강제연행함

전국민중연대 홍근수, 오종렬, 단병호 등 대표들은 부평 산곡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대우노동자 폭행과 관련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인천경찰서장, 김종원 부평경찰서장 등을 살인미

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발표

12 ✿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 전면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과 대책위원회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4.12일 현재 정치수배자와 양심수 명단발표, 기자회견 끝나고 임기란 권오헌 대책위 대표와 정치수배가족 등 20여명은 민주당사 방문 정치수배해제와 양심수석방을 촉구함

✿ 민가협 372회 목요집회, 여는말: 임기란 상임의장님, 경찰폭력 말리다가 구속된 보건의료노조 정원철 조직국장 구속사태: 김성주 보건의료노조 선전부국장, 성균관대 노래패 아우성의 퍼포먼스, 집회시위에 관한 강력대응방안의 문제점: 채은아 민가협 간사, 성명서 낭독: 민가협 방영숙 어머님.

✿ 후원회소식 114호 발송작업, 이창희, 정형근, 한수정, 조경래, 모지희, 변의숙, 송창학 회원 등이 함께 함.

13 ✿ 후원회소식 114호 발송(국내 1015통, 국제17통)

✿ 노동해방과 통일조국 그날을 보시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이옥순님 49제가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고인의 유족과 선생님, 사회각계 여러분이 함께한 자리에서 49제를 올렸습니다.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후원회밤 행사가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서울부페에서 많은 사회단체 성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있었음

✿ 종로경찰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이 국민의 정부 아래서 사망했다.' 는 주장을 상징으로 광화문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민주노총 건설운수 노조 김순환 노조원을 '혐오감을 주는 차림' 이라며 강제연행, 즉심에 회부

14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상임대표 및 집행위원장단 4차 회의, 안국동 불교인권법당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등 검토. 오종렬, 박정기, 권오헌, 진관, 박원순, 이은경 등 참여함.

✿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해제 농성단과 양심수 후원회, 명동성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석방 토요집회. 이승미, 김민정, 김숙희, 양계숙, 김호, 이창희, 남보현, 한수정, 안은현 회원 등 참가.

✿ 산행소모임에서 북한산 우이암으로 야간산행하다. 신현익, 이정태, 조경래. 김재명, 이창희 회원 등이 함께 함.

15 ✿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통일광장 등 사회단체 회원, 청년통일광장회원과 청년학생 등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통일광장 해오름식, 청년통일광장 출범식을갖고 2부느티나무 공연이 있었음

✿ 양심수 후원회 회원 모임을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갖고 편집위원회, 장기수선생님후원 모임, 시사모임, 산행모임, 양심수에게 편지쓰기 등 각 부문 활동계획과 13차 정기총회 준비 등 협의

16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오종렬, 권오헌 대표 등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를 방문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조사기간 연장문제, 위원회 권한 강화 등 개정 필요성을 계승연대 의견으로 제시

✿ 성남 모란민속시장 상인회 소속 300여 상인들이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일본교과서 왜곡 규탄집회를 열고 일본문화 전면개방취소,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했음

17 ✿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 · 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미동포 송학삼씨가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림. 송학삼씨는 모두 진술에서 북의 지령을 받고 잠입, 탈출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 미국시민권을 가진 누구도 평양을 방문 가족을 만나듯 50년간 헤어져 산 막내동생을 만나기 위해 평양에 갔다고 주장. 이번 공판에는 미 영사관 직원도 방청, 재판과정을 녹음했음

✿ '사회민주주의연합' 이 주관하는 국가보안법 기획강좌에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란 주제로 사민련 강당에서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회장의 강의

✿ 민주노총 등 7개 노동, 시민단체는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과 관련 이무영 경찰청장과 민승기 전 인천지방 경찰청장 등 관계자 5명과 5개 전투경찰대 대원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

18 ✿ 민주노동당, 민족문제연구소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공동주최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43돌 기념식' 이 효창공원 백범 김구선생 묘소에서 있었음

✿ 4월 혁명회가 주관하는 '4월혁명상수상 및 기념 강연회' 가 홍사단 강당에서 있었고 올해 4월 혁명상은 매향리 주민대책위에 주어지고 김남식 선생의 '한반도 통일정세와 민족의 진로 강연이 있었음

✿ 고려대 학생 5천여명이 4.18고대생 의거 41돐을 맞어 '4.18기념 통일맞이 행진' 에 나서 수유리 4.19묘역까지 행진

19 ✿ 수유리 4.19국립묘지에서 4월혁명회,범민련 남측본부, 전국연합,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가협, 유가협, 민지통 등 민족민주운동단체 4.19 41돌 공동 추모식 갖다.

✿ 민가협 373회 목요집회를 민가협 등 19개 인권단체가 대우 노동자 폭행 등 김대중정권 인권침해규탄 연대 집회로 열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소장의 사회로 민가협 자원활동가그룹의 퍼포먼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창조,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 최용철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등의 발언이 있었고, 광주인권센터 고애순 간사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 대우차 해고노동자,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건설노조원은 서울역 관정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대우차 폭력진압, 김대중정권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 를 갖고 경찰청장 등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청 앞까지 거리행진

20 ✿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기자회견

✿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유남호 판사는 파업독려와 대학구내 집회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규현 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에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죄(제3자개입금지)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

2001년 4월

21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제13차 정기총회가 홍사단 강당에서 열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관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가 열림,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 촉구연설 권오헌

동국대에서 '이른바 민혁당 대책위 후원의 밤' 행사와 후원주점이 열림

22 양심수 후원회 4월 산행, 우이동 그린파크를 떠나 도선사 · 소귀천 능선 · 북한산성에 올라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하고 이어 시사토론 NMD, TMD 문제 발표와 토론, 이어 대동문 · 진달래 능선 · 4.19 국민묘지 참배를 마치고 뒷풀이로 하루를 마침. 이종린, 권주환, 유기진 선생님과 이정태, 신현익, 정형근, 변의숙, 이승미, 남보현, 양계숙, 이창희 회원 등이 권오헌 회장님과 함께 함.

24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불교인권위원회는 불교인권법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갖다. 이 자리에는 민가협, 유가협, 범민련, 전국연합 대표들이 함께했음

전국농민회총연맹 8기 2차년도 임시 중앙위원회 및 창립 11주년 기념식이 농업중앙회 서울지역 본부 강당에서 있었음. 전국연합 · 범민련 · 민가협 대표 등 참석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는 영등포 문래동 문래공원 박정희 흉상복원 현장에서 '박정희 흉상 복원규탄 긴급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갖다.

나라사랑 청년회 월례 교양강좌에서 '열사정신 계승에서의 청년의 임무' 등 내용으로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강연

25 한총련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건국대 총학생회장 배민균 학생을 한총련 대의원 국가보안법상 이적규정 구성 · 가입혐의로 구속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에 배치되는 한총련 이적규정 즉각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 · 배민균 총학생회장 석방을 촉구. 그러나 서울지검 고영주 1차장 검사는 한총련이 강령을 바꾸었지만 대외적으로 위장하는 것이라며,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로써 와해시킬 대상이라고 억지주장.

26 민가협 374회 목요집회, 임기란 상임의장 여는 말, 정형기 학생출소인사와 건대총학생회장 구속과 관련 서주호 건대생 사례발표, 보안관찰법 문제로 이혜정 발언, 성명서 민가협 권성희 회원 낭독 등.

명지대 교정에서 고 강경대 열사 10주기 추모제 및 추모문화제와 열사동상 점등식을 고 강경대 열사 10주기 추모사업준비위원회 주최로 유가협, 민가협, 범민련,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 대표들과 서총련 학생이 함께한 자리에 있었음.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였던 김선명씨 등이 가처분 조치등을 원천봉쇄한 보안관찰법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사건에서 위헌청구를 받아 드려 집행정지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보안관찰법 24조 단서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27 서울대 아크로 폴리스 광정에서 양키고홈 용병반대를 외치며 산화해갔던 고 김세진, 이재호 열사 15주기 추모제를 서울대 김세진, 이재호 열사추모위원회 주관으로 열림. 열사 부모님들과 범민련, 유가협, 민가협,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대표들, 서울대 등 서총련 학생들과 함께 함

서울 신길동 사무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대표들과 통일연대 사무실 집들이가 참가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음.

28 대경지역 양심수 후원회 제6차 정기대의원대회가 대경지역 연합사무실 지하 회의실에서 열림. 대의원 대회에서도 5차년도 사업보고와 평가를 승인하고 6차년도 사업계획을 채택했으며 한기명 선생님 등 공공대표, 강구배님 등 운영회와 이영기님 등 간사선철. 이영희, 김민남 선생님 등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 곽은경 사무국장을 재신임 하였음. 장기구금 양심수 김태수 선생님과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대표의 격려사와 축사가 있었고, 6차년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등 결의문을 채택했음.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민혁당 사건 심재춘(권오헌), 서원철(신용헌), 정명기(정형기) 님을 각기 면회. 비록 갇혀있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을 키우는데 열심히였고, 민가협 어머님들과 양심수 후원회원들에 감사인사를 잊지 않았음.

29 양심수 후원회원들, 인천나사렛 한방병원에 입원치료하고 계신 정순덕 선생님을 모시고 인천 무의도에 봄소풍을 감. 이 자리에는 9.2일 북녘으로 가신 이경구 선생님 사모님이신 김송단님과 김영승, 이선근 통일광장 선생님이 함께 하였고, 정순덕 선생 후원회 사무국장 이광우님이 함께 했음. 곽인석, 이득행, 양계숙, 이승미, 변의숙, 김현애, 송창학, 주경임, 이정태, 김호, 남보현, 이창희 회원 등이 함께 함.

동국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에서 모인 여성활동가 400여명이 모여 반미여성회 준비위원회를 결성. 준비위원장으로 배은심 전 유가협 회장, 임시 집행위원장에 전국연합 손미희 전 여성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했으며,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미군국제폭격장 폐쇄, NMD · TMD 반대 투쟁을 펴기로 결의

30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안 인권법을 찬성 137, 반대 136표 표결로 통과시킴.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권 등 알맹이가 빠진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올바른 인권법, 대책위에서 반대해온 법안이 있음- 법이통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금강산에서 열린 이북의 조선직업총동맹과 공동으로 하는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에 함께하기 위해 금강산 유람선 '설봉'으로 장전항으로 떠남. 한편 민주노총은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5000여 조합원과 시민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세계노동절 111돌 기념 전야제를 가짐

양심수 영치금, 117명에게 보냄

양심수에게 말지 4권 발송

출소 장기수 선생님 및 양심수 가족 지원금 보냄.

회원소식

- '후원회소식'을 편집하는 여혜정 회원님께서 4월 26일 득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고현희 회원소식을 넣어야
(월요일 교정볼 때 넣겠습니다.)

- 정순덕 선생님과 함께 봄소풍을!

4월 29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원들이 인천나사렛 한방병원에 입원치료하고 계신 정순덕 선생님을 모시고 인천 무의도를 찾아 확트인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섬풍경을 보며 조개도 캐면서 뜻있고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9.2일 북녘으로 가신 이경구 선생님 사모님이신 김송단 님과 김영승, 이선근 통일광장 선생님이 함께 하였고, 정순덕 선생 후원회 사무국장 이광우님이 함께 했습니다. 매오로시 간병팀으로 봉사하는 김현애 회원님과 곽인석회원님이 준비한 이번 '봄소풍'에는 이득행, 양계숙, 이승미, 변의숙, 김현애, 송창학·주경임가족, 이정태, 김호, 남보현, 이창회 회원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5월달부터 매오로시 간병팀은 정순덕선생님 간병을 매월 둘째주 일요일 2시반, 마지막주 토요일 10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 회원분들의 소중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김현애 회원님(016-236-22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드디어 "회원모임방"이 마련되었습니다.

10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의 바램을 모아 낙성대 만남의 집(151-056 서울 관악구 봉천6동 1690-141)현관옆 방에 '회원모임방'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앞으로 회원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소모임의 회의공간으로도, 시사강좌 등 회원교육장으로도 이용됩니다. 회원 및 사업에 대한 각종 문의도 받습니다. 전화(888-4470)도 있고, 초고속인터넷망도 설치하고, 컴퓨터도 프린터도 있습니다. 이제 회원들의 적극적인 발걸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주 들러주세요!

음! 컴퓨터의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복사기나 팩스를 마련해야 하는 등 약간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집기나 괜찮은 컴퓨터 남는(?) 것이 있다면...하하하!

5월 산행

5월달 항상 가는 관악산으로 갑니다.
바쁜 5월이지만 잠시 자연과 벗삼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언제 : 2001.5.27.오전10시
어디서 : 관악산
만나는 곳 :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1,2번출구쪽매표소
갖출것 : 도시락, 회비(3000원) 등
오는편 :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오세요!

정기구독을 바랍니다

월간 '민족21' 창간!!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통일잡지에 장기수선생님을 후원해온 회원들의 애타는 정들이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민족21'은 북녘가신 선생님들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원들사이에 정다운 가교가 될 것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정기구독을 바랍니다.

구독신청: 이창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수습간사
019-205-7937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를 통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일정한 금액이 양심수후원회의 기금으로 쓰입니다. 적극적인 정기구독을 바랍니다.

각 소모임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 **야간산행이 3월, 4월 두 번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적지만 야간산행에 참가한 사람의 소감은 다들 좋다고 합니다. 야간산행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 갑니다. 산행에 관심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이정태 017-281-5500)
- **시사모임에서는 5월 13일 오후 6시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첫 강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2년사'라는 주제로 권오헌 회장님을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합니다. 한 달에 한 번하는 회원교육강좌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시사궁금증을 풀어가는 식사모임(?)에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송창학 016-235-3726)
- **4월부터 옴시롱감시롱, 매오로시, 갈현동후원회** 등이 어우러져 장기수선생님관련 후원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기수선생님들에 대한 후원단체들간의 교류를 통해 보다 더 장기수선생님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관심있는 회원들의 실천적인 후원을 도모하고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기수선생님 후원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 노혁 019-323-0598)
- **'양심수에게 편지쓰기'**의 주체가 보낸 편지에 아름다운 답장이 왔습니다. 모르지만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한 뜻의 실현을 위해 애쓰다 감옥에서 투쟁하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편지를 보냅시다. (문의: 안은현 016-274-9878)
-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늘리기** 운동을 계속 되고 있습니다. 4월에도 3명의 회원이 편집위원이 되셨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회원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문의: 이승미 016-395-0725)
- **홈페이지 관리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는 6월안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www.yangsimsu.or.kr)를 개통하려 합니다. 홈페이지에 관심있는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웹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인 경우 특별히 우대하지 않지만, 참여하시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문의 : 양계숙 017-325-4287)